

벤처 재무,

벤처기업 성공의 또 다른 열쇠

벤처기업 재무는 일반재무와 달리, 사업모델과 발전단계에 따른 자금조달과 이를 시장에서 실현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무적 추정과 구체적인 소요자금 산출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아무렇게나 버려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 성공의 또 다른 열쇠는 벤처재무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글 _ 심규태 (한국CFO스쿨 부학장, ktshim@cfoschool.co.kr)

벤처 비즈니스의 핵심, 고위험 고수익

벤처기업이 높은 수준의 혁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벤처 비즈니스의 핵심적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은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역동적 경제구조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벤처 비즈니스의 또 다른 핵심개념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개념일 것이다. 이러한 고위험·고수익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주는 기술적 혁신과 새로운 시장창출에 기인한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위험이 기업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전문역량의 부족과 제반 인프라의 결여에 기인하고, 고수익의 원천이 일시적 투기 열풍이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아무리 벤처기업이 주는 이점이 크다 할지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기업경영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성 또는 수익성과 다른 종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를 구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문할 수 있지만, 벤처 비즈니스와 벤처재무의 핵심인 투자와 투자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벤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투자자금이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는 벤처기업의 통상적인 범위를 말하는 것이며 성공했을 때 수익성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차원이든 전 사회적 차원이든 벤처기업에 왜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 할당에 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투 자 유 치 성 과 와 실 패 , 명 확 한 분 석 중 요

벤처기업 재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벤처기업의 높은 기술적 혁신가치가 사업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에 맞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활히 조달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이 자금의 성격은 아주 높은 수준의 목적성 자금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임의성 정도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자금운용의 임의성이 높다면 이는 단계에 급성장하려는 벤처기업에 있어 자금 조달의 목적부터 소급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벤처재무의 가장 큰 특성은 벤처기업 사업단계별 소요되는 정확한 자금의 산출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적절한 자금원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정확히 조달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발생한 성과와 실패를 명확히 분석하여 사업자체의 성패에 대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적절한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조달 시 지분을 관리 및 회수전략도 중요하다. 하지만 IMF 이후 경험한 1차 벤처활성화 시기의 경험은 사업적 모델과 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정확하게 사업목적에 맞게 산출하고 이를 조달하여 운용하는 데 있다.

과거 대기업의 ‘大馬不死’, 즉 ‘죽을 기업이 죽지 않는’ 폐단을 익히 경험한 바 있는 벤처기업이 재무와 경영의 미숙으로 인하여 이를 답습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벤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중장기적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재 무 확 립 으 로 투 자 자 와 시 장 의 신 름 회 복

벤처기업의 강점은 기술기반의 혁신적 고객가치를 추구하여 수많은 기업가적 도전을 전제로 하지만, 기술개발과 시장성으로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래성공을 위한 실패경험’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자산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벤처 메커니즘이며 여기에 벤처 재무의 핵심 역할이 있다. 이것이 벤처기업 재무의 핵심적인 이슈인 것이다.

1차 벤처활성화 시기에 우리는 이 점을 너무도 쉽게 간과해 버렸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이어서 추정이 어렵다”느니 “기술발전의 패러다임이 너무도 급격히 바뀌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느니 하는 변명에 언제나 숫자와 구체적 가치로 이야기해야 하는 벤처재무가 너무도 쉽게 넘어가 버렸다. 그리하여 구체적 내용의 뒷받침 없는 배수와 지분율에 집착하고, 심지어는 코스닥 한탕주의에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렸다.

사업은 사업이고, 재무는 재무인 것이다. 벤처기업 재무는 일반재무와 달리 사업모델과 발전단계에 따른 자금조달과 이를 시장에서 실현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무적 추정과 구체적인 소요자금 산출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아무렇게나 버려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 한 번의 벤처 활성화를 얘기하는 시점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벤처재무의 핵심을 확립함으로써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사회가 벤처기업에게 쥐야 하는 선물이 아니라 벤처기업이 사회에 먼저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실패가 벤처의 특권이라고 해도 동일한 실수를 다시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 성공의 또 다른 열쇠는 벤처재무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